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12일(화요일) 저녁 19시,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5명) - 김담주, 박춘미, 유근영, 유혜진, 이지은 교원위원(3명) - 양순실, 조문숙, 이미령 ※ 불참(2명) - 홍이랑부위원장, 봉성화교원위원

의사일정
1. 급식에 대한 자문
2. 201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평가
3. 소망반 교사 변경에 대한 안내

o 간사: 지금부터 제3기 2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1. 급식에 대한 자문>

o 간사: 홈페이지에 급식메뉴 사진이 탑재되고 있고 통신문과 종일반 교육안에 메뉴가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십니까?

o 박춘미위원: 나물류나 볶음반찬, 국 등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o 유혜진위원: 집에서는 김치나 매운 음식들을 잘 안 먹는데, 유치원 김치는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o 이지은위원: 우리 아이는 쇠고기육개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쉽게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조리사님께서 아이들 입맛에 맞게 해 주시나 봐요.

o 양순실원장: 조리사님께서 매일 아이들의 잔반상태, 섭취량 등을 체크하시면서 조리에 반영하고 계십니다.

o 유근영위원: 유치원에서 잘 먹으니까, 반찬에 있어 김치의 종류도 배추김치, 깍두기 외에 좀 더 다양한 김치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리사님 두 분께서 김치를 직접 담그시기 때문에 담그시기 좋은 것, 보관이 용이한 것을 고려하다 보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오이김치도 넣기는 하는데 보관이 어려워 당일에만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o 유근영위원: 환경교육으로 '발우공양' 했던 것 아이가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더라구요.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o 박춘미위원, 이지은위원: 맞아요.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오면 집에서도 알려주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o 박춘미위원: 종일반 요리, 간식활동으로 편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o 간사 : 간식에 우유가 많이 나온다는 의견도 있으시던데요.
o 학부모위원들: 우유는 거의 매일 나와도 좋은데요...
o 양순실원장: 사실 연령별로 유제품 알레르기나 특이체질 유아들이 몇 명 있어 그렇게 다 잡기는 어렵고, 주중에 계절과일이나, 주제와 관련된 간식을 넣거나 변화를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o 간사: 이 외에 급식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어 마무리>

<의사2. 201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o 간사: 지난 주 금요일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조사지가 배부되었는데, 아직 회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전체 결과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부분 또는 주변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o 김담주위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카페트 위생, 바닥에 물걸레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o 이미령위원: 카페트는 원래 융으로 된 것을 사용했는데, 관리와 세탁이 용이하지 않아 천으로 된 카페트로 몇 년 전부터 교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질 경우, 수시 세탁하고,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있습니다.
o 양순실원장: 천으로 된 카페트라서 매년 10개 이상씩 새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기돌리고 물걸레질은 매일 담임교사가 모든 수업이 끝난 후, 교실 정리할 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도나 계단은 보조조리사님께서 화장실과 함께 매일 청소해 주십니다.
o 유근영위원: 그러면 창틀이나 그런 세세한 곳의 먼지는 매일 청소하나요?
o 양순실원장: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2~3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o 유근영위원: 담임선생님들이 수업 후에 청소까지 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o 양순실원장: 물론 교사들이 쉽지는 않지만, 운영면에서 인력을 다 두기는 어렵구요, 또한 청소의 의미도 있지만, 교구교재를 제자리에 정리하며 빠진 것이 있는지 보고 채우거나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o 유혜진위원: 여름철이라 벌레가 없을 수는 없는데, 가끔 벌레를 봤다는 얘기를 아이가 할 때가 있어요. 모기에도 가끔 물려 오기도 하구요. 소독이나 약 처리도 하시는 지요?
o 양순실원장: 실내는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실외에서 놀이 시에 모기 등의 해충 관리를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독업체 삼정그린환경에 의뢰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제 사용은 옥시 사태 이후 아무래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제 등도 다 치웠답니다.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서는 관리 차원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o 박춘미위원: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늘막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현재는 그늘지는 곳에 돗자리를 제공해 물놀이하다가 쉬고 싶은 유아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과 벤치 설치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o 김담주위원: 유아들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 안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잘 다루고,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o 양순실원장: 사실 5세반에만 컴퓨터영역이 있고, 연령상 그 연령에게 교육하는 편이었는데, 학부모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 전 연령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실감이 됩니다.

o 이지은위원: 어른인 저희보다 사용방법을 더 잘 알고, 오히려 기능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o 간사: 한쪽에서는 사용안전교육을, 다른 곳에서는 최첨단 교육이라며 계속 온라인,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고...참...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 지네요.

o 이지은, 박춘미위원: 이제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이에 대한 사교육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o 유혜진, 김담주위원: 유아 시기에는 담임선생님 얘기는 잘 들으니까 그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 간사: 네. 더 신경 써서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o 김담주위원: 도서대출 시 가끔 책을 보면 뜯겨져 있을 때가 있더라구요. 그냥 집에서 테이프로 붙여 보내도 되는 건지...사서선생님께서도 확인하시는지...

o 이지은위원: 네. 가끔 책이 망가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o 양순실원장: 사서선생님께서 확인하시기는 하는데, 대출되었다가 반납되는 도서가 보통 200권이 넘다보니, 놓칠 때가 있으신가 봅니다. 별도로 책을 고치는 재료도 있습니다. 또한 사서선생님께서 1년에 한 번 장서정리를 하시고 망가진 책 중 좋은 것은 추가로 구매하고, 정 사용이 어려운 도서는 폐기처리를 합니다. 좀 더 신경 쓰시도록 전달하겠습니다.

o 김담주위원: 부모님들이 쉽게 확인되게 책표지에 이 책이 망가졌다는 메모를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아마 인기 있는 책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o 양순실원장: 그렇죠. 그래주시면 더 확인이 쉽기는 하겠네요.

o 유혜진위원: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같은 도서를 여러 번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골고루 볼 수 있게 리스트를 뽑아 아이가 본 도서를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요?

o 양순실원장: 전체 유아를 다 체크해주기는 어렵구요. 대출 시 바코드를 찍으면 아이가 그동안 대출한 도서목록이 나옵니다. 사서선생님이 보시고 중복될 경우, 가급적 다른 책을 권하기도 하는데, 아이가 보고 싶어 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또 빌릴 수 있게 합니다. 단, 발달에 안 맞거나 하면 다른 도서를 권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제에 관련된 도서를 찾아볼 수 있게 담임교사가 권하기도 합니다.

o 간사: 이 외에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마지막 안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의사3. 소망반 교사 변경에 대한 안내>

o 양순실원장: 여기 소망반 자녀를 두신 위원님도 계시는 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인사권은 제게 있고, 그러기에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신문으로 안내를 드렸지만, 원으로 이에 대한 학부모님의 연락은 없었는데, 혹시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o 유혜진위원: 중간에 변경된 거라. 갑작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주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인지요?

o 양순실원장: 그냥 안정되게 쭉 하면 저도, 부모님들도 괜찮았을 수 있겠으나, 소망반 우리 귀한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5세인만큼 교육활동이 다양하고 매우 활발한데, 그것에 맞춰 진행하시기를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임교사들과 제가 계속 서포트하며 지원했는데, 스스로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에 한 달 동안 여러 교사들을 면접을 보며 어렵게 새 담임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o 유혜진위원: 사실 3월에 소망반만 새로 오신 선생님이셨고, 중간에 또 변화가 있는 거라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그런데 생각보다 애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은 안 힘들어하시나요?

o 간사: 물론 중간에 들어온 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수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잘 해 주려는 열의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 저 또한 소망반 아이들이 졸업할 때 까지 더욱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소망반 학부모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o 간사: 이 외에 또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학부모카페에 남기신 의견들은 없으셨나요?

o 김담주위원: 카페에 졸업하신 학부모님들도 회원으로 있으시고,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신문, 교육안도 올리긴 하는데...

o 이지은, 유혜진위원: 카페이용하면 통신문, 교육안 보기가 편하던데. 좋아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 학부모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o 간사: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간이 늦은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시간 내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학기 운영위원회 운영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기 록 자 : 조문숙(인)